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건 솔 프 란 치 스 코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 오후 6시(학생미사)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7월
	·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보편 지향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요한6,11)



△ 그림: www.bistum-wuerzburg.de

◎제1독서: 열왕기 하권 4,42-44

◎제2독서: 에페소서 4,1-6

◎복음: 요한 6,1-15

◎화답송: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주님의 식탁”

성경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식탁, 세리들의 식탁, 가난한 이의 식탁, 친구 라자로의 식탁 등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 식탁에 초대되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식탁 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식탁에서 먹은 예수님의 사랑을 토대로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식탁에서 먹는 음식만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생물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하느님 사랑에 대한 굶주림에 쌓여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식탁의 주인으로 준비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신 다음 당신의 손으로 양식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복음에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식탁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듯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애환과 어려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까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배고픈 양들을 먹이듯 예수님께서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복음대목 이후에 나온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 (요한 6,35)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식탁에 굶주린 사람들을 초대해 식탁에서 주인으로 양식을 내어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당신의 실재적인 몸이었고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의 존재였습니다. 이는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찬례가 이루어지는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빵으로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 속에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봉헌한 예물로 받쳐진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굶주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먹여주십니다.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혜문학: 삶의 지혜를 전해 주는 성경의 책들
⑦(집회서)

성경에서 1장 1절을 시작하기도 전에 머리글이 붙은 경우는 집회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회서는 이 머리글에 저자와 역자, 작성 연대와 시대적 배경, 예상 독자, 작성 목적, 주제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머리글을 쓴 사람은 저자의 손자입니다. 이 손자는 저자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시라의 아들’을 뜻하는 ‘벤 시라’라고 말합니다.

벤 시라는 현인으로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지혜를 전달하고자 집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히브리어로 쓴 책을 손자가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봉독하는 집회서입니다.

집회서는 기원전 18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는 헬레니즘의 시대로서 그리스어가 상용화되던 때였고, 헬레니즘의 영향은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인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 따른 것입니다.

벤 시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면서 집회서를 저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다른 나라 땅에서 살면서 문화의 차이를 느꼈고, 더 발전된 그들의 문화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조상들이 살아온 지혜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는 가운데 1장부터 하느님께서 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 (머리글)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지혜가 율법에 적혀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민족들의 지혜가 아닌 우리가 가진 보화들에서 지혜를 얻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집회서는 ‘온고지신’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집회서에서 말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만의 과거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현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느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우님들 모두 말씀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이번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 제 양 성 후 원 회 비]
(2021년 7월)

강주연헤레나	김정옥안나	박진숙아가다	유숙자수산나	장애자루시아
고정자안나	김정자요안나	방민정스텔라	유순애데레사	장은수요한
권희자보나	김진영마르첼리노	방현옥레지나	유정옥데레사	장태순소피아
김남숙클라우디아	김태식요셉	방현주리디아	윤순자데레사	전종남사도요한
김문식베드로	김평기토마스	백순동데레사	윤이순마르타	정덕순데레사
김문자로사	김학열몬타노	백영애마리아막달레나	이귀자수산나	정명이세실리아
김복순데레사	김한레쟁마	설진수마리아	이금이마리아	정봉련데레사
김서준미카엘	김해련세실리아	송은조아네스	이병열미타엘	정인덕가브리엘
김성자젤마나	김현정	심경이마리아	이복영안젤로	조금원세라피나
김속희베로니카	김현철안드레아	심데레사	이성숙안젤라	차오순안나
김순영쟁마	김희남사라	안성옥에리카	이점옥안젤라	최경완쟁마
김순태보나벤투라	남종기고스마주임신부	양경희헤레나	이연옥스텔라	최신자말가리다
김영원올리바	박순애데레사	양명순아네스	이정재요셉	홍은미유스티나
김영창실비노	박순옥모니카	오현주안나	이현명사도요한	황금레데레사
김유리율리안나	박일레리따	원수관야고보	임영자데레사	황병순리따
김재환요셉	박재홍베드로	유교순베로니카	임철종베드로	황혜경미카엘라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전주 농약사	하늘해외여행사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송현귀(요한) 최금호(요안나)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비전골 명품한우전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오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농약, 종자, 모종, 농자재, 묘목 황인수(요한) 김효순(루치아) 전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287-4900 H.P. 010-8239-4348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동래분식	남문&mail.남문문구센터	MG남부새마을금고	(유) 쿡뱅크	풍남정
새알팔죽, 팔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다들집 양명구(다비드) 이정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672-018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원수관(야고버)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본점(남부시장) ☎283-7611-3 학산지점(평화동) ☎283-7614-5 홍산로지점(효자동) ☎286-7616-7 이사장 이경춘(마르첼리노) H.P. 010-3659-1907	그릇대여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e-mail: jsm1605@naver.com H.P. 010-7657-1606 ☎284-1606	전주전통비빔밥 불낙전골, 떡갈비 전문점 박래연, 이현숙 전동성당 후문 H.P. 010-3680-2756 ☎282-8754

전 동 계 시 판

◎ 오늘은 첫 순교터 후원의 날입니다.

■ **예비신자 연중 모집:** 예비신자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2022년도 혼인미사 예약접수:** 타 본당교우 포함 선착순 접수중이오니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문정성당 성전건립을 위한 물품 판매 안내**

* 일시: 오늘(토, 주일) 미사 전후, 성당 앞 마당

* 책, 향수, 양초 등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무지개장학재단 2021년도 하반기 장학사업 안내**

*지원대상: 전북지역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부모 가정의 자녀 *신청기간:8/6(금)까지

*접수: 전주교구청 사회사무국(063-230-1074)

♥우리 본당으로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2021년 4월 ~ 7월 전입교우)

성명	세례명	구역	직전본당
안성신	M. 마가렛	전동	분당성요한
이필현	고드릭	기타	효자동
장태영	안드레아	경원동	동탄숲속
박순자	골롬바	동완산동	오룡동
이기철	발라바	기타	만성동
홍지수	유릿다	기타	숲정이
태지인	글라라	기타	상미
유진순	루치아	기타	쌍교동
김유진	요한나	기타	봉선유안
박선자	헤레나	기타	가톨릭센터
진명식	요 셉	동완산동	중앙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계좌입금: 전북은행 1013-01-3079726 천주교유지재단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1. 8/1(주일)까지 성당 좌석수의 30%인 120명까지 미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단, 백신접종자는 입장제한 인원에서 제외)
2. 제단체(레지오 포함) 회합은 금지합니다.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7월23일 현재)	587 명
후원회원 목록	10,000 명

우리들의 정성(7월 12일~7월 18일)

주일헌금:	3,711,000	교무금:	2,605,000
감사헌금	김금례(임 파)	100,000	
	방현주(리디아)	3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 | |
|---------|---|
| √ 회원구분: |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 √ 납부방법: |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 (재)천주교유지재단) |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남창당한약방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셀모) 이성숙(안젤라) 전통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루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삼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서승희(클레멘시아) 조성휘(안드레아) 진번들6길8-10(아츨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전통한약방 제1호 인증 원장 한광수 전통성당 맞은편 한옥마을 입구 H.P. 010-3653-8586 ☎284-8586